

천체 사진가 이건호

이달의 주인공인 천체사진가 이건호 씨와는 몇 년 전 인터뷰로 만났던 적이 있었다. 이번 인터뷰 약속을 잡으며 오랜만에 전화로 듣는 그의 목소리는 그때처럼 여전히 편안했다.

“요즘은 사진 찍으러 나가는 게 조금 뜸해요. 주변에서는 슬럼프가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40대이다 보니 회사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네요.”

별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는 질문에 각종 상패로 가득한 거실장에서 상패 하나를 꺼내서 보여준다. ‘1997년 1월 26일’이라는 날짜가 적혀있는 상패였다.

“그때 아마 오리는 대성운을 찍어서 사진전에 냈을 겁니다. 이 상을 받기 1년 전쯤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X-Nova’라는 천문동호회에 들어가서 천체 사진을 배웠죠. 아마 이 상을 받게 해준 작품이 제가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찍은 첫 사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당시에 국내 아마추어 천문인들의 장비 성능은 많이 떨어졌고, 디지털카메라 시대인 요즘과 비교해서 필름으로 좋은 사진을 얻기도 쉽지 않았던 때였다.

“이 상을 받고 본격적으로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등학교 때도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천문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저희 때가 천문반 2기였는데, 1기 선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지요.”

체대로 된 천체망원경을 처음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사진을 제대로 찍으려면 적도의 가대가 필요했지만 돈이 모자라 경위대를 사야만 했다고 한다.

“망원경 가격이 22만 원이었어요. 지금 보면 아주 큰돈은 아닌

데, 당시 쌀 한 가마니가 4, 5만 원 했었으니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죠. 부모님이 쌀도매업을 하셨는데, 쌀 대어섯 가마니나 하는 걸 사서 뭘 하려고 하나면서 안 사주셨어요. 한 달 정도를 즐겼어요. 결국, 부모님이 저주셨지요. 그 망원경은 지금도 고향집에 있습니다.”

막상 원하던 망원경은 손에 들어왔지만 밤하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기에 뭐 하나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요즘 초보자들도 그럴 거예요. 별자리도 모르고, 성운, 성단도 잘 모르면 그냥 눈에 띄는 것부터 보게 되죠. 처음 봤던 달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빌려 찍어보기도 했어요. 달은 밝으니 까 웬만큼은 나왔지만, 목성이나 토성은 형편없었죠.”

별을 좋아했던 이건호 씨는 천문학과로 진학을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택한 과는 전기공학과였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하는 과에 가기에는 성적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진학상담 때도 하시는 말씀들이 취미로 별보는 것과 학문으로 별을 연구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천문학은 포기하고 그냥 일반적인 학과로 진학하게 됐죠.”

천문학은 포기했지만, 입학하자마자 천문 동아리에 1등으로 등록하고, 직접 반사경을 깎아서 망원경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열성적이지는 않았단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아예 별 볼 여유가 없더군요. 그렇게 별을 잊고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도 갖게 되었죠. 그러다 미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곳 망원경 상점에서 오래 전부터 갖고 싶었던 망원경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여전히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던지라 제대로 된 사진을 찍진 못했죠. 그러다 천문동호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호 씨의 주 관측지는 강원도 횡성의 덕초현 천문인마을이다. 집과 천문인마을을 열심히 오가며 많은 사진을 찍었다. 최근에는 16인치 망원경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12인치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큰 구경에 욕심이 생기더군요. 현재 16인치는 조립이 다 된 상태이고 최종적인 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계가 리치-크레티앙 방식인데 세팅이 어렵더군요. 이게 세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제작한 망원경의 경통은 탄소섬유를 여러 겹 말아서 만들었다. 금속이 아닌 탄소섬유를 사용하는 것은 열팽창률 때문이다. 금속 경통은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촬영을 하다 보면 초점이 변한다. 반면, 탄소섬유는 열팽창률이 극히 작아서 밤새 사진을 찍어도 초점이 변하지 않는다. 단점이라면 가공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망원경 자작에 남다른 능력을 가진 이진호 씨는 국내 아마추어천문인 중 처음으로 원격관측시스템을 도입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날 좋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짐 싸들고 강원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있고, 회사 일도 있는데 하루, 이틀씩 집을 비우는 게 어렵더군요. 인터넷을 보니 외국에서는 원격관측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2004년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내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지금은 생소한 전화모뎀으로 했으니까요. 화면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보니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니 오고 가는 시간은 줄었지만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늘더군요. 선이 자주 끊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이 있어서 바로 옆에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문인마을 건물 옥상에 원격관측시스템을 설치했을 때는 돈도 없었다. 옥상에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커다란 비닐로 덮어 놓은 게 다였다. 그래서 관측을 할 때는 전화로 덮개를 벗겨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단다. 어찌 되었건 원격은 원격이었던 셈이다.

“요즘 우리나라 아마추어들의 사진을 보면 정말 다들 잘 찍습니다. 상향평준화됐어요. 거기에는 디지털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사진 하나 찍으면 일주일만 기다려야 결과물이 나오고, 잘못 된 걸 바로 잡는 데 한 달, 그렇게 해서 한 1년은 지나야 그나마 괜찮은 사진 한 장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장비 하나 사면 그날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딥 스카이를 두루 섭렵한 이진호 씨가 최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점성촬영이다. 우선 장비가 간단하다는 점이 마음에 든단다. 그리고 구도나 배경을 구상해서 자신만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점성촬영의 매력이라고 한다.

“필름은 별과 지상풍경 모두 멋지게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별을 또렷하게 찍으려고 일주하는 별을 따라가다 보면 지상 풍경이 흘러버리고, 지상 풍경을 살리자면 별이 많이 안 나오고요. 디지털카메라는 짧은 노출 시간으로 밤하늘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별과 풍경 모두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장비와 방법은 간단한데,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이진호 씨는 동호인 몇 명과 호주로 남반구밤하늘 촬영 여행을 다녀왔다. 첫 번째 해외 원정이다 보니 준비도 소홀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단다.

“좀 더 좋은 밤하늘을 찾아서 원래 계획했던 곳에서 차로 6시간을 넘게 달려 사막으로 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3, 4일을 묵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날씨가 좋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내년쯤 안시관측 동호회에서 호주 원정을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 보는 것 외에 다른 취미가 없냐는 질문에 얼마 전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주변 권유로 골프도 조금 배우고 있고, 예전에는 열대어 키우기도 잠시 해봤다고 한다. 오디오에도 발을 들이려다가 엄청난 가격표를 보고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단다.

“별 보는 게 워낙 좋은 취미이다 보니 사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단순히 별 사진만 찍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망원경도 만들어 보고, 계획을 세워서 메시에목록 천체만 찍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미션을 만들고 하나씩 완성해 나갈 때 성취감도 생기고 더 재밌어요.”

이진호 씨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 미션은 소행성이나 혜성을 찾는 신천체 탐색이다. 원격관측을 시작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16인치 망원경 세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천체를 발견해서 제 이름 석자가 영원히 밤하늘에 남는다면 별 보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큰 망원경도 만들어 보고 싶고, 조그마한 집과 관측소를 지어서 가족들이랑, 동호인들과 함께 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는 이진호 씨. 그가 계획하는 신천체 탐색은 부단한 노력과 함께 ‘운’이 따라야 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그의 모습에서 노력의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나마지만, 행운이 늘 그의 곁에 함께 하길 바라본다.

